

해피밀 시즌 5-2호를 발간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며 6일 동안 매일 1바퀴씩 돌았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숫자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그동안 보여주신 선한 성품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진 앞에서 여리고 성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돌파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현대판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좋은 전략, 도와줄 사람, 많은 자원 등을 찾곤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한다면, 두려워 떠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여리고 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능력만 뛰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한 성품도 갖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거대한 여리고 성,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피밀과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2025년 11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수 6:15-21

믿음은 미래적인 것

15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16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

해피인사이드

이동원 목사

오늘 본문에는 마침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에 '일곱째 날'이라는 말속에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에 제법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째날 성을 돌고, 둘 째날 성을 돌며 그렇게 6일간 성을 돌았습니다. 사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어서 성을 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들이 걸은 7일간의 기간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발자국을 내딛는 이유와 근거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7일간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미래적'인 것을 뜻합니다.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실상)처럼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7일간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첫 째날 돌 때에도 그들은 이미 그 성이 무너졌음을 바라보며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믿음으로' 돌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미래에 있을 그 일을 확실히 여기며 오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합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여리고 성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리고 성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정복 앞에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항복' 뿐이었고,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미래에 있을 확실한 일을 믿으며, 오늘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며, 마침내 이 땅에 사단의 잔당을 다 멸절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확실히 일어날 것을 진정으로 아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날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흰색 보좌 심판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삶을 합당한가요?
2.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 6:22-27

헤렘 전쟁

22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23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4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시하실 때 이 전쟁의 특징은 바로 '헤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진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멸하다는 것은 멸종시키다와 같은 강세의 말씀으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헤렘 전쟁을 보며 하나님을 참 가혹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충분히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지만, 아직 그리 하지 않는 이유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이니라'(창 15:1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실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 족속의 죄가 가득 찼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악이 가득 차, 도무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영화 <아포칼립스>를 보면 원시부족이 끔찍하게 타락했을 때의 양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참혹하고 부당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그러한 지경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릴 때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도 바치곤 하였습니다. 그 끔찍이 타락한 문화는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헤렘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칼이었습니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다시는 여리고 성을 짓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맹세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성읍은 단순히 한 장소,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의 기억을 되살리기 때 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수많은 문화재들을 굳이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원된 것을 보며, 민족의 정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이 다시 복원된다는 것은 그 끔찍했던 가나안 땅 문화를 복원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복원하지 말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34)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죄된 것은 진멸해야 합니다. 그 죄된 것이 떠오르는 기물이 있다면 버리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의 신앙에 진멸해야할 악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2. 그 악한 습관을 계속하게 만드는 어떤 물건, 장소는 무엇인가요?





루 7:1-15

하나님의 생각

... 7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었드렸느냐 ...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신앙생활을 하며 늘 되새기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었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제법 기특합니다. 왜 자신들이 패배하게 하셔서, 자신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십니까(9절)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패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가 될까 나름대로는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요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 전쟁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함으로 이 언약이 훼손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바쁘길, 많은 것을 해내길, 대단한 업적을 세우실,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과 동행하길 바라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추 7:16-21

자백하다.

16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뿔혔고 17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뿔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뿔혔고 18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뿔혔더라 19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오늘 본문은 범죄 한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의 죄를 벌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아간을 찾아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묵상하며 하나하나 추적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예리한 수사(detecting) 방식을 보게 됩니다. 마치 MRI 초음파가 온몸과 폐부를 찢어 쪼개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들추어내듯, 감추어졌던 범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추었다고 생각한 그 제물들, 또한 자신의 죄과를 하나님 앞에서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것은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 과거의 죄, 남들이 모르는 내밀한 죄, 생각과 마음의 죄도 하나님은 다 밝혀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아간의 모습 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간에게 네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자복(찬양)하라' '네가 한 일을 고백해라' '숨기지 말라'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아간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숨기지 않는 그 일이 곧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비단 나의 죄를 고백하는 암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찢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마땅히 반응하여 찬양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간은 이 일로 인하여 '헤렘(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비와 용서의 은혜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미 심판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적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다 자복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졌다 생각했던 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2. 미쁘시고 의로운 빛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해봅시다.





수 7:22-26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22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23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2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오늘 본문에는 아간이 심판 받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아간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 괜한 연민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간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딸들,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과정은 꽤나 잔인합니다. 성경에는 돌로 치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 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불로 태운 뒤 돌로 다시 쳤을 수 있고,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웠을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형벌의 모습은 참 잔인해보입니다.

그러나, 그 잔인함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서른 여섯 명이 죽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 물 같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또한 죄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태초에 하와의 범죄는 다만 하와만 죄를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전염시켰으며, 그렇게 들어온 죄의 문제는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전염시켰습니다. 그러니, 아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죽었다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선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을 죽인 뒤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대대로 기억해야 할 때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요단을 건너 세운 길갈의 열두 돌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아골 골짜기에 쌓인 아간의 돌무더기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념비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극심한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죄의 문제가 강력하고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으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야 할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전염성이 어마무시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고지순하신 사랑을 늘 새겨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내 안에 불쑥 불쑥 솟아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2. 최근 십자가를 보며 묵상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 8:1-9

세심하신 하나님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
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2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
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3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부모님께 크게 혼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혼난 후에 마음은 어떨까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눈치
를 보시진 않으셨나요? 죄송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치킨을 주
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승진하셨을 때 먹던 치킨을 말입니
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확 풀렸던 것 같습니다. 눈치 보며 즐겼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져 언제 그랬
냐는 듯이 하하 호호 웃고, 재잘재잘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그들이 함께 했지만,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었
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함으로 거저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잊고 교만함으로 아이 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전투의 방법을 묻지도 않았고, 전심을 다하
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는 죄가 스멀스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
간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으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완전한
패배를 맛보았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해결
할 방법을 친히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법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받아주셨고, 이제 그들에게 승리할 방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말씀(수 1:8)입니다! 즉, 그들은 그때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 힘
을 얻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실패로 인하
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
분의 자녀들도 돌보십니다. 주님의 세심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듣고 맡겨진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승리를 노
래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세심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2.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맡겨진 자리로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수 8:10-17

믿음에 기반한 행동

10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1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12 그가 약 오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벤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13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허락된 지, 정, 의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 정, 의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지, 정, 의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지, 정, 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창조 때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작동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지, 정, 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투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이 성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부의 병력을 택하여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를 보고 아이 성의 왕은 그들을 쫓았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독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라가라'라고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말씀 성취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따라 말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두렵고 떨립니다.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서는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까 봐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2.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좋은 결과를 맛본 적이 있나요?





주 8:18-23

하나님의 일하심

18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20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21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혹자는 '신은 죽었다, 세상을 창조 후에 잔다'라며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가 뜨고, 해가 지겠습니까? 겨울이 왔다가, 봄의 싹이 트겠습니까? 분명 이 모든 것 뒤에는 신실하기 운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투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은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가운데 일어날 역사들을 기대하며 세세한 전투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의 손의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담력을 얻어 전투의 자리로 임했습니다. 어제까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으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패배의 경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주저앉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 경험에 사로잡히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이 들리자마자 그들의 담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복병들은 순식간에 아이 성을 점령하여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유인하던 본대도 힘을 얻어 반격하기 시작했고, 양동작전으로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왕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손을 들고 전투에 임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린 물맷돌로도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과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만난 기억을 나눠보세요.





주 8:24-29

죄-멸망, 순종-승리

24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얹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25 그 날에 얹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26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7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28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라는 잠언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난 이것에 유혹되고 넘어지지 않아'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유약한 우리는 결국 유혹 앞에서 물들고 넘어지고 맙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해야 합니다.

한 번 패배를 맞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선택의 순간 때마다 그들의 방법이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전의 방법처럼 남녀만 이천 명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신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길 바라셨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의 문화와 종교,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스토리를 이해하고 믿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미성숙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문화와 종교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물들게 하고 결국엔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전쟁을 세심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번엔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아이 성왕의 기체를 거두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취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경험과 전통, 습관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된 주님의 뜻을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2.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인해 혼동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주 8:30-35

잠깐 멈춰 서서

30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 이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2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3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 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드라마나 영화 혹은 소설을 볼 때 '개연성이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것은 '흐름이 맞지 않다, 각 장면의 상관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시청자나 독자들은 흐름이 맞지 않을 때 다소 당혹감을 느낍니다. 물론, 연출자가 의도적으로 개연성을 깨뜨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술적으로 멋지게 승화되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든 시청자나 독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스토리상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흐름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사망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했다, 전열을 가다듬고 그다음 전쟁을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이들은 모두 모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그리고 이방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약궤를 멘 레위 제사장들 앞에 섰습니다. 여섯 지파는 그리스 심 산에 섰고, 다른 여섯 지파는 에발 산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내용이고,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점령하자마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마치 이 일을 위해 아이 성 전투를 치른 것 같습니다.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신 주님께서는 아마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긴박한 전쟁의 이야기가 가운데 제단을 쌓고,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한 데에는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특별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전쟁들처럼 한 나라의 부강을 위하여 이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몸소 전투를 감당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로 만든 제단을 통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사람들의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하나님의 진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과 일곱 족속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진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진군입니까? 때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종속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해피인플루언서

1.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색하다고 느끼시나요?
2.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나요?



장년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8장 10-17절> 쓰기

10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1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12 그가 약 오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벤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13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5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16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17 아이와 벤엘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주 9:1-15

살 수 있는 길

1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헛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3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여리고 성과 아이성의 점령당한 후 가나안의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심으로 모여 하나님께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 중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분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우니 서로 연합하고 동맹하여 하나님께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께 저항하시거나 그분을 적대시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나아와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제외한 모든 가나안 민족들은 일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백성만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먼 이방 땅에서 왔다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거짓말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를 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린다는 것을 기브온 주민들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마땅히 멸하여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로써 전부 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선택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그 선택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하게 해 주시겠거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2. 우리 눈에 참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서 멈춰 서서 이에 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추 9:16-21

거룩한 원망

16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17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여아림이라 18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은 지 삼 일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라 진멸 대상 리스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선택을 내리게 된 그들의 족장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늘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족장들을 향한 이들의 원망은 지금까지의 원망과는 다릅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원망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소수의 병력을 아이성에 보냈다가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으며 이는 족장들을 향한 원망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원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건에 대한 원망인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각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과 멀어지려고 하는 상황에 대한 거룩한 원망과 경계심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선 경외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에 가책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쫓아 나가기 힘들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별다른 양심의 가책 없이 짓기 편한 죄의 리스트가 있으십니까?
2.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아이성 전투의 쓰라린 패배를 통하여 순종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이자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주 9:22-27

하안 거짓말

22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 하니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비록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에는 거짓이 담겨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화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왜 거짓말을 하였는지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우리를 진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꾀를 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이 거짓 화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거나 죄를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공동체에 속하여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성읍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되었으며,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터전은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훗날 바벨론 포로귀환 후 기브온 주민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도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을 고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려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기생 라합은 거짓을 고하면서까지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거짓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거짓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이후 어찌 보면 평생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터전은 죽음의 터전에서 생명과 축복의 터전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계속하여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우리 눈의 저주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해를 끼치는 거짓과 생명을 살리는 거짓은 성경에서 구분됩니다.
때로는 진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수 10:1-5

하나님 백성의 현실

1 그 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3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4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 소식은 아도니세덱에게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브온 성은 비록 왕이 다스리지 않았지만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크고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세덱은 왜 이토록 강대한 기브온 사람들이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짓으로라도 화친을 맺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세덱은 두려움에 빠지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 아닌 반대로 남아 있는 가나안 왕들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들을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브온 주민들과도 같은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였다면, 나의 자존심과 주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께 대항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선택에 축복과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하여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였으며, 실제로 그들의 숫자와 위력은 어마어마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내렸기 때문에 모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고 가장 먼저 내렸던 결정은 바로 기브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자신을 떠나 진리로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며, 공격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며, 불이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자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편에 끝까지 남는 최고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거나 처리하기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그분의 편에 선 자들에게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으로부터 어떤 방해와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2. 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기는 당장 보기에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영원치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수 10:6-11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가나안의 다섯 왕들은 기브온을 치기 위해 서로 연합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기브온은 당장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비상 사태였지만 이를 선뜻 행하기에는 주저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면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들 자신들을 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도와줄지 확실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이 맺은 약속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구원해 주실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속였던 기브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유효하며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심되는 마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3에선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으며, 그분께 구함으로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그들에게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연합군을 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브온의 요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들이 열심히 싸웠기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연합군에게 큰 우박을 내리사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혹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회개하는 것조차 포기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2.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유아유치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10장> 색칠하기

여호수아 10장 1-15절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전쟁은 늘 승리해요!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